

‘품질 대란’ 겪는 트레이더조 토트백



▲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미니 토트백, 사진=트레이더 조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 김밥 열풍’을 일으킨 식료품점 체인 트레이더조(Trader Joe’s)가 이번에는 자사의 2.99달러짜리 쇼핑용 토트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토트백은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서 최고 499달러까지 재판매되고 있다.

1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전 “올해 최신 ‘잇백(it bag·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가방)’은 유명 디자이너나 명품 브랜드 제품이 아니다. 식료품점 체인 트레이더조의 2.99달러짜리 ‘미니 캔버스 토트백’이 스탠리 텀블러나 테일러 스위트의 굿즈(상품)처럼 전국에서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트레이더조의 일부 매장은 고객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트레이더조는 홈페이지에서 ‘미니 캔버스 토트백’을 “노란색, 빨간색, 남색, 짙은 황록색의 네 가지 선명한 색상을 강조한 손잡이를 흰색 가방에 부착했다”며 “면 65%, 폴리에스터 35%의 혼방으로 높이 11인치(28cm), 너비 6인치(15cm)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토트백은 은은하고 편안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놈 코어 룩’(Nom core look)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시야에 포착돼 뜻밖의 인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강력한 재판매 시장까지 생겼다. 이베이에서 이 가방은 499달러에 올라왔다”며 “틱톡의 한 이용자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인) ‘고야드 미니백’ 같은 에너지를 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자사의 토트백이 고가에 재판매되자 트레이더 조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생활비 부족에 노후 자금 인출 사용”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미국인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은 전날, 작년 말 기준 뱅가드그룹의 약 500만 개 401K 계좌 중 3.6%에서 조기 인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8%)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지난 5년 평균(2018~2022년)인 2.1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인들이 401K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401K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다. 매달 일정 퇴직금을 근로자와 회사가 매칭 식으로 부담해 적립금



▲ 한 고객이 마켓에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을 쌓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에는 과세를 유예해주고 은퇴 후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주는 대신,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세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뱅가드그룹의 401K 계좌 조기 인출 금액은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생활비를 명목으로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세청은 생활고와 관련된 사유에만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WSJ은 “미국은 고용 호조로 근로자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식료품, 보육비, 자동차 보험료 또한 계속 오르는 상충하는 재정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지하철역서 군인들이 불심검문

최근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시가 지하철역 곳곳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 갑툭음을 막아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가 주 방위군 750명과 경찰관 250명을 뉴욕 지하철에 투입해 승객들이 흥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행됐다. 군인과 경찰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투입됐고, 지하철역을 지나는 승객들의 가방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있다.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철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욕 지하철역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기관사가



▲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의 지하철 입구에서 가방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좌우를 살피다가 괴한에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월에는 열차 내에서 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

한편에서는 방위군 투입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주마네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지하철을 군사화하고 대중들의 지하철 이용을 막는 데 자원을 쓰는 것은 심각한 (공권력의) 오용”이라고 비판했다.

불심검문이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비영리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이 2003년부터 20년간 이뤄진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은 8배, 라틴계는 4배 더 많이 검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